

경제

한양·삼성중 '영산강 설계 심의' 1위

(6공구) (2공구)

'스토리있는 조정'등 기술력 높은 평가
가격평가 받았으나 최종수주 가능성 커

■영산강 살리기 사업 참가현황

Table with 3 columns: 공사명, 공사비(억원), 참가사 지분 현황(%)

현 정부의 최대 프로젝트인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영산강 구간에서 ㈜한양과 삼성중공업이 먼저 웃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28일 '영산강 살리기 사업의 2·6공구에 대한 톱키(설계·시공 일괄 발주)공사의 설계 평가를 실시한 결과, 2공구에서는 삼성중공업 컨소시엄이, 6공구에서는 한양 컨소시엄이 경쟁사에 비해 설계 점수가 높았다'고 밝혔다.
균호·남양·한양 등 지역 대표 건설사들간 빅 매치가 펼쳐진 총 사업비 3천362억의 6공구(서창) 하천정비사업에서는 한양 컨소시엄이 설계 능력 평가 점수에서 87.55점으로, 남양(80.97점), 금호(78.53점)보다 6.58~9.02점 앞서 적격업체 선정에 위한 유력한 고지를 선점했다.
㈜한양은 42%의 지분을 갖고 금광기업(15%)·남해종합개발(7%)·우미건설(7%)·새천년종합건설(7%)·삼성에버랜드(7%)·남도건설(5%)·대신건설(5%)·해동건설(5%) 등과 팀을 이뤘다.

한양측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민간사업으로 추진할 때부터 꾸준히 준비해온데다, 영산강 사업 구간이 광주시의 한 가운데를 포함한다는 점을 고려해 '스토리'가 있는 조정 분야 설계에 공을 들인 게 높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고 밝혔다.
삼성중공업 컨소시엄도 2공구(다시)하천정비사업(총 사업비 1천487억)에 대한 설계 평가에서 85.43점으로, 신동아건설 컨소시엄(84.68점)보다 0.75점 앞섰다.
삼성중공업은 포림(20%)·월드(5%)·이연개발(5%)·신화(7%)·가산토건(9%)·남흥건설(9%)·금강건설(5%) 등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침에 따라 기술력 등을 우선시한다는 취지에서 100점 만점에 60점을 설계 능력 평가에, 가격 점수에 40점을 주는 격차를 적용한다. 적정 공사를 감안하면 가격을 지나치게 낮게 써내려 갈 것이라는 점에서 '뒤집기'는 무리라는 것이다.
이날 설계 심의가 진행된 영산강 2개 공구를 비롯, 금강 6공구와 7공구에서는 지역 업체간 희비가 엇갈렸다.
신동아건설 컨소시엄(84.68점)보다 0.75점 앞섰다.
동강건설의 경우 SK건설 컨소시엄에 참여, 설계 점수 1순위로 금강 7공구(총 사업비 1천800억) 수주에 한 발 다가선 반면,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에 참여했던 금강기업은 금강 6공구에서 GS건설 컨소시엄에 뒤졌다.

또달청의 설계 평가 점수와 가격 점수 합산 과정이 남아 있어 최종 시공사 확정에는 이르지 않았지만, 설계에 우선 순위를 둔 만큼 이번이 없는 한 '역전'은 힘들다는 게 건설업체 측 일반적 입장이다.
'명품'으로 조성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설계 점수 1순위로 금강 7공구(총 사업비 1천800억) 수주에 한 발 다가선 반면,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에 참여했던 금강기업은 금강 6공구에서 GS건설 컨소시엄에 뒤졌다.

한편,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설계 평가 점수를 조달청에 통보, 30일째 실시설계적격자가 선정되는 대로 다음달 9일 2개 공구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추석자금 방출

추석을 앞두고 28일 오전 한국은행 본점에서 관계자들이 시중 은행에 방출될 현금을 운반하고 있다. (연합뉴스)

펀드 만기 사라지고 수수료 내린다

금융투자협 약관 개정 ... 내달 5일 시행

다음달부터 적립식 펀드의 만기기를 마음대로 연장할 수 있고, 목표 금액도 증액 또는 감액이 가능해져 펀드의 만기나 목표금액 개념이 사실상 없어진다.
거치식 펀드에도 일정 금액 인출 방식이 도입돼, 기존에 수익금에 한해서만 환매 수수료가 면제됐던 게 원금 일부 인출시에도 적용될 수 있게 됐다.
펀드 수수료와 판매보수 상한선이 대폭 인하돼 가입자들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것이다.
한국금융투자협회는 판매 회사와 투자자 간 펀드거래시 적용되는 표준약관인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을 개정하고 다음달 5일부터 바뀐 표준약관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새 약관에 따르면 적립식 펀드의 경우 가입 기간을 일정 기간 이상으로 정해 실질적 만기 개념을 없앴다. 기존에는 가입 기간이 3년 등 일정 기간 내로 정해져 있었다.
또 1천만원이나 1억원 등으로 목표 금액을 정하고 불입했던 펀드에 대해서도 목표금액 감액이나 증액이 가능토록 해 목표 금액도 사실상 없었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기존 적립식 펀드 가입자는 만기나 목표 금액을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게 된다.

1~9월 무역흑자

310억 달러 전망

올 들어 9월까지의 무역흑자가 약 310억 달러가 될 것으로 추산됐다.
지식경제부는 28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주요 수출업체와 수출 유관 기관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최경환 장관이 주재하는 수출입동향 확대 점검회의를 열었다.
지경부는 이날 회의에서 올 들어 9월까지의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1% 정도 감소하고, 수입은 33% 내외로 줄어 이 기간의 무역흑자가 사상 최고치인 310억 달러 안팎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올해 연간 무역흑자는 400억 달러 내외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같은 기간을 기준으로 한 이전의 역대 최고치는 외환위기(IMF) 직후인 98년 1~9월의 289억 달러다. 지경부는 또 올 상반기에 우리나라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순위가 지난해의 12위에서 9위로 3계단 상승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보성건설 인수·합병 후 급성장
공공공사 수주 탁월 전국 41위

(주)한양은?

㈜한양은 '수자인'이라는 브랜드의 아파트 사업을 중심으로, 토목과 플랜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전국 41위(국토부 시공능력평가)의 중견 건설업체다.
지난 1973년 설립된 뒤 주택건설, 토목, 플랜트, 전기, 통신공사 등 각종 국내 도급공사와 해외건설사업에 참여하며 1978년에는 워싱턴포스트지 등으로부터 세계 12위 건설사로 선정되기도 했다.
특히 입주정동 한양아파트 건설을 시작으로 15만 세대에 이르는 아파트 건설로 최고의 주택건설 명문 업체로 성장하면서 1990년대 초까지 아파트 건축시장 도급 순위 4위권에 들 만큼 명성을 날렸다.
또 예술의 전당, 삼양 월드컵 경기장, 인천 문학경기장, 과천시 서울랜드 등 국내 대표적인 건설사업에도 참여했다.
그러나 93년 11월 법정관리에 들어갔으며, 2001년 파산선고를 받았다. 그러나 최대 채권자인 주공이 전 인수협상대상자인 곳도 남시와 2002년 인수계약을 맺으면서 파산상태에서 벗어났다가 국토부 시공사로 법정관리에 들어가 계약이 해지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으며 재매각이 추진됐다. 이 과정에서 화순에 분사를 둔 보성건설이 새창조건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난 2004년 470억원에 인수한 후 한양에 흡수 합병됐다.
한양은 보성 인수 뒤부터 매년 2배 이상의 매출 성장을 기록했고 올 상반기에도 5천억원이 넘는 공공공사를 수주했을 뿐만 아니라 수도권에만 6천여채의 아파트 공급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남아있는 수주 물량도 3조원에 달한다. /김지을기자 dok2000@

토지주택공 상임이사 5명 확정

전남대 이정록교수 등 비상임이사 8명도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8일 초대 상임이사 6명 가운데 부사장을 제외한 5명의 내정자를 확정했다.
상임이사 내정자는 허련(55) 토지공사 경영지원이사, 박관민(54) 토공 공사 사장, 이봉형(53) 주택공사 기획조정실장, 오두진(56) 주공 보증자리 개발1차장, 박한석(55) 주공 주택도시연구원장이다.
토지주택공사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1년 이상 임기가 경과한 기존 인사를 제외하고, 기존 처장급(1급)에서의 승진을 원칙으로 직종 간, 지역 간 안배를 고려해 이뤄졌다"고 말했다.
내달 중 공식 선임될 예정인 부사장은 국토해양부 강팔문 국토정책국장이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또 토지주택공사의 비상임이사 8명을 이날 함께 내정했다. 신규 임 비상임이사로는 송수일(6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정동양(60) 한국교원대 기술교육과 교수,

허익구(54) 진주산업대 벤처창업대학원 대학원장, 김현희(54) 한신대 사회학과 교수, 이정록(52) 전남대 지리학과 교수, 박두진(49) 공인회계사, 이 현(48)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를 공동대표, 함성득(46)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가 선발됐다. 상임이사과 비상임이사의 임기는 각각 2년씩 이고, 1년 연장할 수 있다. (연합뉴스)

은행 예대마진 2% 6개월만에 최고치

은행권의 잔액기준 예대금리차가 2%대로 올라가면서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신규취급액 기준 주택담보대출금리는 지난해 10월 이후 최고인 0.8%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8월 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의 총대출 금리는 잔액기준 5.49%로 전월의 5.44%에 비해 0.05%포인트 올랐다. (연합뉴스)

부당 세무조사 납세자 요청맨 중지

앞으로 부당한 중복 세무조사가 진행될 때 납세자가 국제청이나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자에게 권리보호를 요청하면 세무조사가 중지된다.
또 납세자보호담당자는 평소 국제행정 집행 과정에서 납세자에 대한 권리침해 행위가 없었는지 수시로 점검하고 세무조사 이후에는 납세자의 불만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국제청은 이런 내용의 납세자 권리

보호요청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 다음달 15일까지 의견수렴에 들어갔다고 28일 밝혔다.
권리보호요청 대상은 세무조사와 행정 집행 과정에서 납세자의 국제행정 집행 행위로 납세자는 국제청 납세자보호관,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자에게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연합뉴스)

Market index table with 4 rows: 코스피지수, 코스닥지수, 금리, 원·달러 환율. Includes a note about exchange rate updates.

Large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Asset Korea' (에셋코리아) featuring various property listings with columns for location, price, area, and contact info.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광주 전지역 빌딩 전문' (Gwangju Building Specialist) offering services for building leases and sale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대인동삼일부동산' (Daedong Samil Real Estate) specializing in hotel/motel developments and property sales.